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6월

선교편지 제 153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은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소위 '독재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마르코스 주니어' (애칭 - 봉 봉 마르코스, BBM)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역사는 변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아버지인 마르코스 시니어 전 대통령은 1965년에 권좌에 오른 후,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1년 전, 퇴임 준비가 아닌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의회를 멈추고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으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필리핀은 인권 유린과 부패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며, 돌이키기 어려운 빈곤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Financial Times (ft.com)

이러던 중에 1983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반대했던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 '아키노'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필리핀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마침내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People's Power Revolution' (국민 권력 혁명) 이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시대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마침내 마르코스 일가는 당시 28살의 정치 신인이었던 '마르코스 주니어'와 함께 하와이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와이로 떠난 후 드러난 마르코스 일가의 사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대통령 궁에서 발견된 영부인 이멜다의 수많은 사치품들과 3000 켈레의 구두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수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르코스 일가는 이 때 약 100억 달러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이 중 40억 달러만이 국고에 회수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리핀의 어려운 역사를 뒤로하고, 세월이 흘러 당시 28세의 나이로 하와이로 쫓겨났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64)가 놀랍게도 말라카낭 대통령 궁의 새 주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전 국민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를 받으면서 6년 임기의 필리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 때 온국민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꾸준한 이미지 쇄신의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권자들 중에서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층인 20~40대를 공략하여 '함께 일어서자' (Rise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필리핀도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시대는 평화롭고, 멋지고, 통일된 시기였으며, 필리핀의 부흥의 시기이다. 그가 나라의 돈을 훔쳤다는 것은 가짜 뉴스이다.'라고, 과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난한 젊은 층에게 지나간 역사를 미화하는 전략이 주효했다고 합니다.

'불과 36년 전의 비극을 벌써 잊은 거냐'하는 안팎의 비판은 아무런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에도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어 불만으로 가득한 민심은 아름답게 보이는 과거의 번영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독재는 '성장을 향해 쉼 없이 달려가던 애국'으로 승화되어, 이제 그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어 온 몸에 기대를 안고 부활을 했습니다.

필리핀 역사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이번 선택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는 궁금증이 벌써부터 생깁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후 2:1-2)**

 지난 5월 21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에서 22명, 아팔라야 예일교회에서 10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기로 지원한 자들은 2번의 세례자 교육과 개인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으므로 구원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또한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됨을 물로 표하고 인치는 의식인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세례식에 참여한 32명의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여기까지 저들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던 자들이었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했던 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격이 올라옴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 디고스 예일교회의 '오지' 가족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버지 '오지' 와 어머니 '로릴린' 그리고 두 딸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래 전 장학 사역을 통해서 두 딸이 교회에 처음 출석을 시작하여 신앙 생활을 하더니, 그 이후 나머지 어린 형제들이 교회에 나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어머니 '로릴린'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지'는 주말마다 아내와 딸들을 오토바이로 교회에 데려다 줄 뿐,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매몰차게 돌아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서서히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되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지, 온 가족이 감사함으로 특별 찬양을 할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아멘' 하며 화답을 했습니다.

세례식을 앞두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한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헤젤'의 형제들에게 시련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헤젤'은 고등학생 시절 때부터 비교적 먼 거리에 있었던 디고스 예일교회까지 출석하며 믿음이 자라 왔던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집을 떠나 형제들끼리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팔라야 지역에 교회가 건축이 되어, 집에서 가까운 아팔라야 예일교회에 '헤젤'의 언니와 두 동생도 함께 출석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번에 형제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젤'의 여동생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16살의 고등학생인데, 세례자 교육을 받는 중에 임신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물론, 헤젤의 형제들도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교회마저 출석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번 세례식에는 '헤젤', 그리고 언니와 남동생만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전 인격적인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마침내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표하는 '세례'를 베풀라는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32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